

곡물 해상운임 동향과 전망

곡물 해상운임 동향과 전망

정영두(캠코선박운용 차장)*

2014/15시즌 대두 물동량은 증가하는 반면 소맥과 잡곡(Coarse Grain) 물동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전 시즌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전망치 또한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다. 건화물선 시황은 Cape 선형을 중심으로 시황 약세가 계속되며 지난 4분기에도 시황 상승이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선주들의 실망이 깊어가는 가운데 선박 운항을 멈추는 현상이 발생하며 추가 하락은 제한되고 있다. 곡물 운임은 용선료 하락에 더하여 최근 연료유가 또한 약세를 보이며 하락폭이 더 커졌으나 향후 운임은 소폭이나마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1. 곡물 물동량 추이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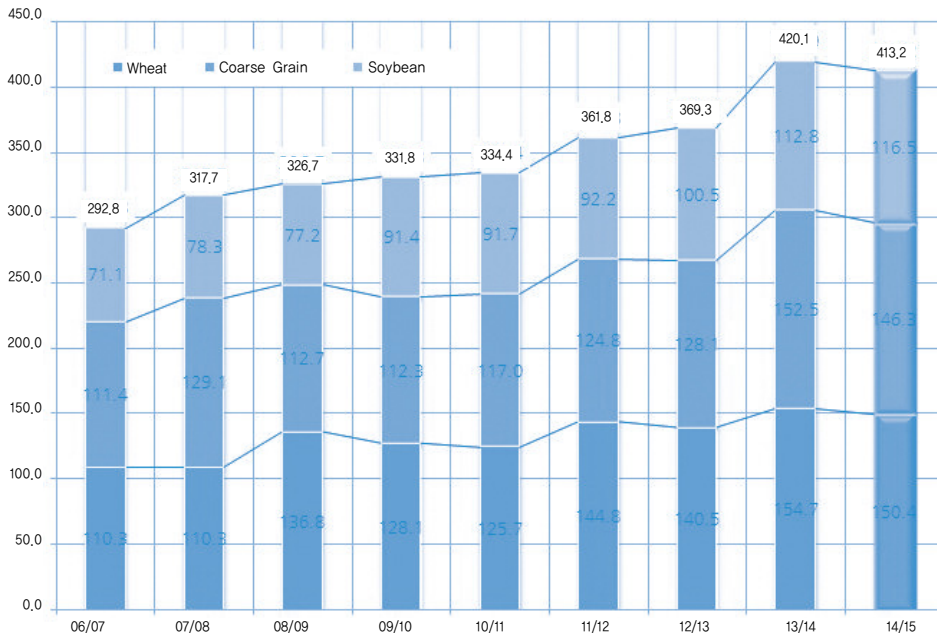
■ 세계 곡물 물동량 추이와 전망 (개관)

표 1. 세계 곡물 물동량 추이와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9/10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밀 (a)	128.1	125.7	144.8	140.5	154.7	150.4
잡곡 (b)	112.3	117.0	124.8	128.1	152.5	146.3
대두 (c)	91.4	91.7	92.2	100.5	112.8	116.5
합계 (a+b+c)	331.8	334.4	361.8	369.1	420.0	413.2
전년 대비 증감률(%)	1.6	0.8	8.2	2.0	13.8	-1.6

* ydjung@kamcosimc.com, 02-2189-5512.



자료: Clarkson, Dry Bulk Trade Outlook, DEC, 2014.

영국의 해운 시장 전문 리서치 업체인 ‘Clarkson’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4/15 시즌 전 세계 대두(Soybean)를 포함한 곡물 물동량은 총 ‘4.13억 톤’으로 전 시즌 대비 1.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월 전망치 대비 ‘220만 톤’ 가량 상향 조정된 수치이다. 곡종별로 보면 2014/15 시즌 소맥과 잡곡(Coarse Grain)물동량은 전 시즌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대두 물동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곡물 물동량이 전 시즌 대비 감소하나 2013/14 시즌의 곡물 물동량 증가율이 14%에 달하며 매우 큰 폭으로 증가했던 점을 감안하면 현재 시즌의 물동량 전망치는 전 시즌 대비 감소가 아닌 소폭 조정 정도로 해석할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사상 두 번째로 많은 물동량이 예상됨에 따라 해운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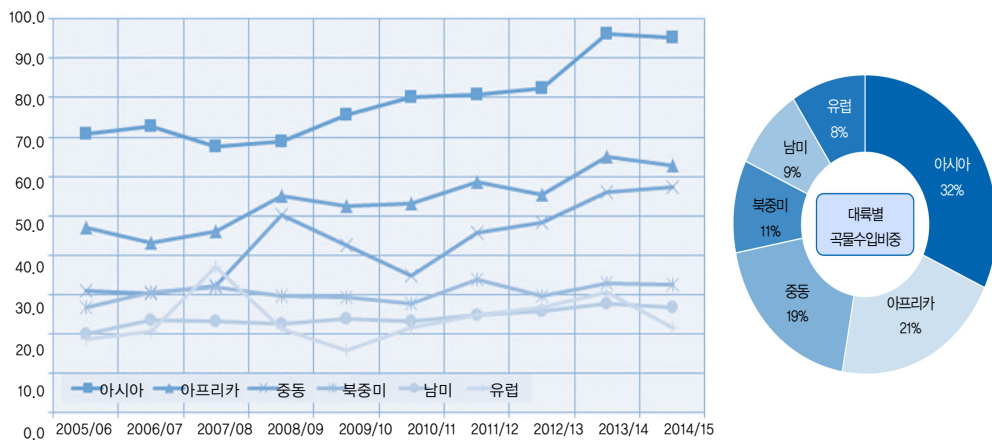
또한 현재 시즌의 소맥과 잡곡(Coarse Grain)물동량 전망치는 계속 전월 대비 상향 조정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미국 등의 작황이 예상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나며 수출 여력이 늘어나기 때문으로 이 또한 해상 운임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 대륙별 곡물 수입량 추이와 전망

표 2. 대륙별 곡물 수입 추이와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증감률 (%)
세 계	243	270	269	307	297	-3.5
아 시 아	80.2	80.9	82.4	96.1	95.1	-1.0
아프리카	53.1	58.6	55.5	64.9	62.9	-3.1
중 동	34.9	45.7	48.3	56.1	57.2	2.0
북 중 미	27.7	33.7	29.7	32.8	32.5	-0.9
남 미	23.1	24.8	25.8	27.8	26.9	-3.2
유 럽	21.8	24.8	26.7	30.7	21.7	-29.3



자료: Clarkson, Dry Bulk Trade Outlook, DEC, 2014. / ※ 대륙별 곡물 수입 비중은 2014/15 시즌 기준

2014/15 시즌 지역별 곡물 수입 전망치를 살펴보면 전 세계 곡물(소맥+잡곡) 물동량은 전 시즌 대비 3.5% 감소한 ‘2.97억 톤’으로 예상되는데 중동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서 수입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유럽 지역의 수입량은 전 시즌 대비 30% 가량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월 전망치와 비교해 볼 때 중동, 북중미, 남미 지역의 곡물 수입량이 전월 전망치 대비 약 2% 가량 상향 조정된 반면 유럽 지역은 전망치가 5% 가량 크게 축소 조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곡물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시아 지역의 2014/15 시즌 곡물 수입량은 전 시즌 대비 1% 감소한 ‘9.51억 톤’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일본의 수입량은 전 시즌 대비 3% 증가한 ‘2.38억 톤’으로 전망되는 반면 중국의 수입량은 27% 감소한 ‘2.39억 톤’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의 수입량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근거는 지난 시즌에 수입량이 2배 이상 급등했던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자국 내 작황이 개선되며 수입

여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아프리카 지역에 위치한 모로코의 2014/15 시즌 곡물 수입량은 전 시즌 대비 13% 감소하며 ‘560만 톤’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다른 아프리카 지역과 중동 지역의 수입량은 최근 곡가 하락으로 인해 수요가 증가하며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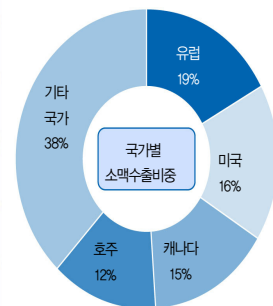
■ 소맥 수출량 추이와 전망

2014/15 시즌 소맥 물동량은 전 시즌 대비 3.1% 감소한 ‘1.50억 톤’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월 전망치 대비 ‘130만 톤’ 상향 조정된 수치이다. 2014/15 시즌 캐나다와 호주 지역의 수출량은 전 시즌 대비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럽과 미국의 수출량은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전월 전망치와 비교할 경우 다른 지역은 큰 변동이 없는 가운데 유럽의 수출량이 ‘200만 톤’ 상향 조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주요 국가별 소맥 수출 추이와 전망

구 분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증감률 (%)
세 계	125.7	144.8	140.5	155.2	150.4	-3.1
유 럽	22.1	15.6	21.7	31.0	28.3	-8.7
미 국	35.7	27.9	27.5	31.3	24.5	-21.7
캐 나 다	16.3	18.2	18.7	22.9	22.7	-0.9
호 주	18.5	23.1	21.3	18.4	18.5	0.5

단위: 백만 톤



자료: Clarkson, Dry Bulk Trade Outlook, DEC, 2014. / ※ 국가별 소맥 수출 비중은 2014/15 시즌 기준

한편 영국의 해운 시황 분석 기관인 ‘SSY’는 2015년 소맥 물동량이 전년 대비 3.9% 감소한 ‘1.22억 톤’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분기별로 볼 때 물동량이 3분기에 크게 증가한 뒤 4분기 들어 다소 조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 잡곡(Coarse Grain) 수출량 추이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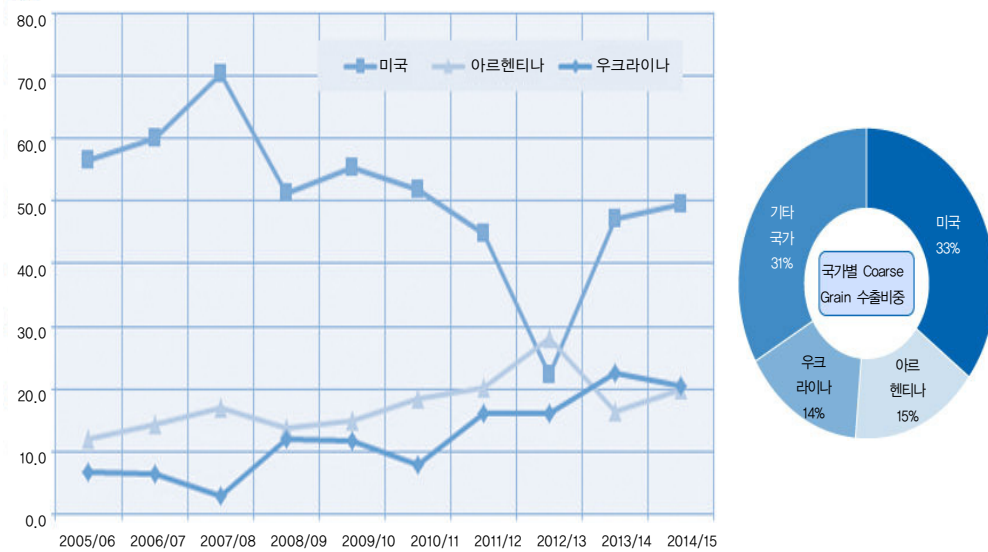
2014/15 시즌 잡곡(Coarse Grain) 물동량은 전 시즌 대비 4.1% 감소한 ‘1.46억 톤’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월 전망치 대비 ‘60만 톤’ 가량 상향 조정된 수치이다. 수출 지역별로 보면 2014/15 시즌 아르헨티나의 수출량이 전 시즌 대비 21%가량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우크라이나의 수출량은 9%가량 감소할 것으로 ‘Clarkson’은 전망하고 있다. 전월 전망치와 비교할 경우 아르헨티나의 2014/15 시즌 수출량 전망치가 전월 대비 ‘50만 톤’ 하향 조정된 반면 미국의 수출량은 ‘50만 톤’ 상향 조정되며 대조를 보이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수출량 전망치는 ‘60만 톤’ 상향 조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SSY’는 2015년 잡곡(Coarse Grain) 물동량이 전년 대비 4.8% 감소한 ‘1.34억 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이는 다른 기관들의 전망치와 비교할 때 집계 방식에 따른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인 추세는 거의 일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분기별로 볼 때 금년 1분기 물동량이 약 ‘3,000만 톤’ 수준을 기록한 뒤 연말에 접어들며 점차 증가하며 4분기에는 물동량이 ‘4,000만 톤’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동 기관은 전망하고 있다.

표 4. 주요 국가별 Coarse Grain 수출 추이와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증감률 (%)
세 계	117.0	124.8	128.1	152.5	146.3	-4.1
미 국	52.0	44.7	22.3	47.3	49.4	4.4
아르헨티나	18.5	20.2	28.1	16.4	19.9	21.3
우크라이나	7.9	16.1	15.9	22.6	20.5	-9.3



자료: Clarkson, Dry Bulk Trade Outlook, DEC, 2014./ ※ 국가별 Coarse Grain 수출 비중은 2014/15 시즌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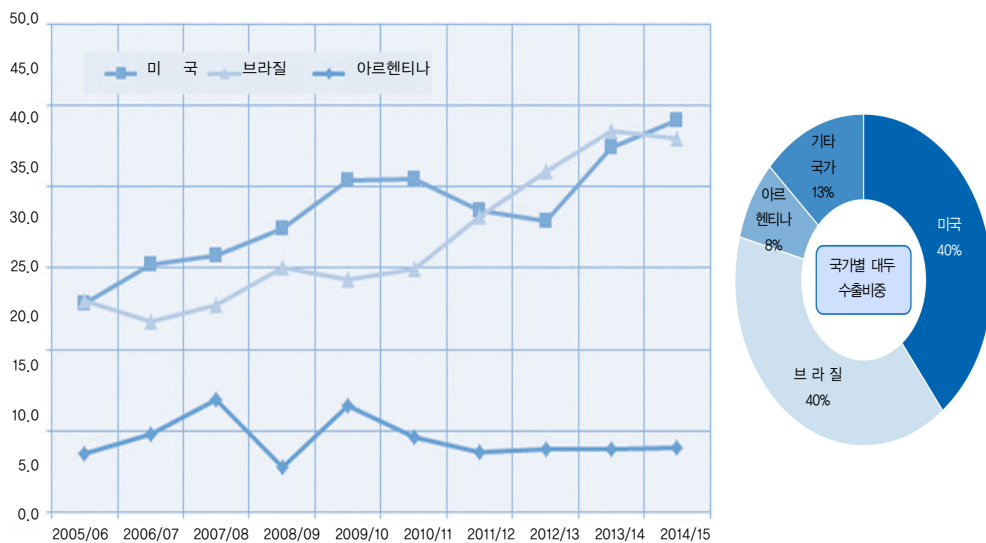
한편 지난 해 11월에 호주와 중국 간에 체결된 자유 무역 협정(FTA)이 즉시 시행되며 호주산 농산물에 부과되던 3%의 수입 관세가 폐지됨에 따라 두 나라 사이에 곡물 수출입량은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현재 호주 지역의 가뭄으로 인해 수출 여력이 많지가 않아 단기적인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 대두 수출량 추이와 전망

표 5. 주요 국가별 대두 수출 추이와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증감률 (%)
세 계	91.7	92.2	100.5	112.7	116.5	3.3
미 국	41.0	37.2	35.8	44.8	48.2	7.5
브 라 질	30.0	36.3	41.9	46.8	46.0	-1.8
아르헨티나	9.2	7.4	7.7	7.7	8.0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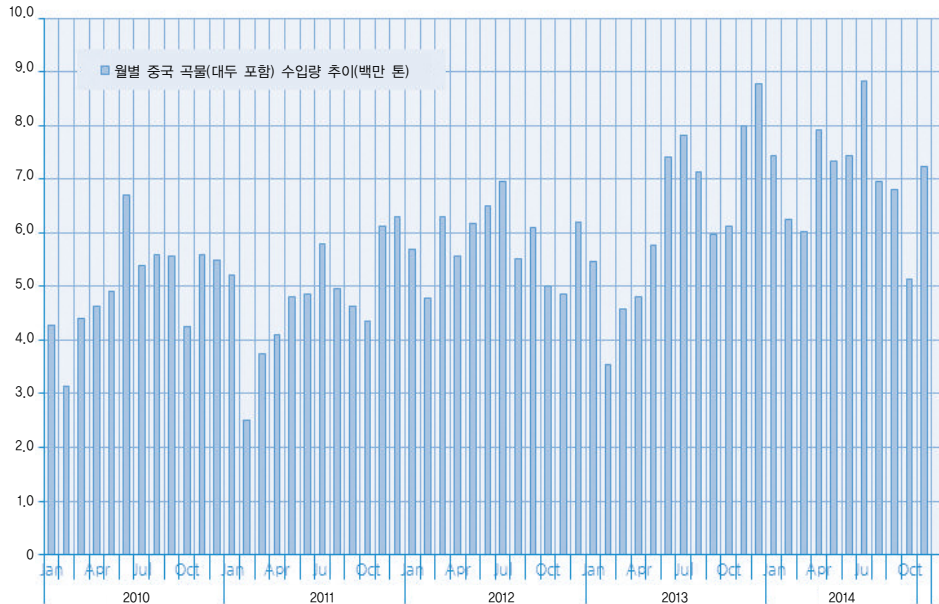


자료: USDA / * 국가별 Soybean 수출 비중은 2014/15 시즌 기준

2014/15 시즌 대두 물동량은 전 시즌 대비 3.3% 증가하며 ‘1.17억 톤’에 이를 전망이며 이는 전월 전망치 대비 ‘30만 톤’ 가량 상향 조정된 수치이다. 미국과 브라질이 시장을 양분하는 가운데 2014/15 시즌 물동량은 전 시즌 대비 미국의 수출량이 비교적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브라질은 수출량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SSY’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대두박을 포함한 대두 물동량은 전년 대비 3.6% 증가한 ‘1.57억 톤’을 기록할 전망이며 분기별로 볼 때 전통적으로 브라질의 수출이 증가하는 2분기와 미국의 수확 시즌인 4분기에 수출량이 급증하며 Panamax 시황 상승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 곡물 수입량 추이와 전망

그림 1. 월별 중국 곡물 수입 추이



자료: Clark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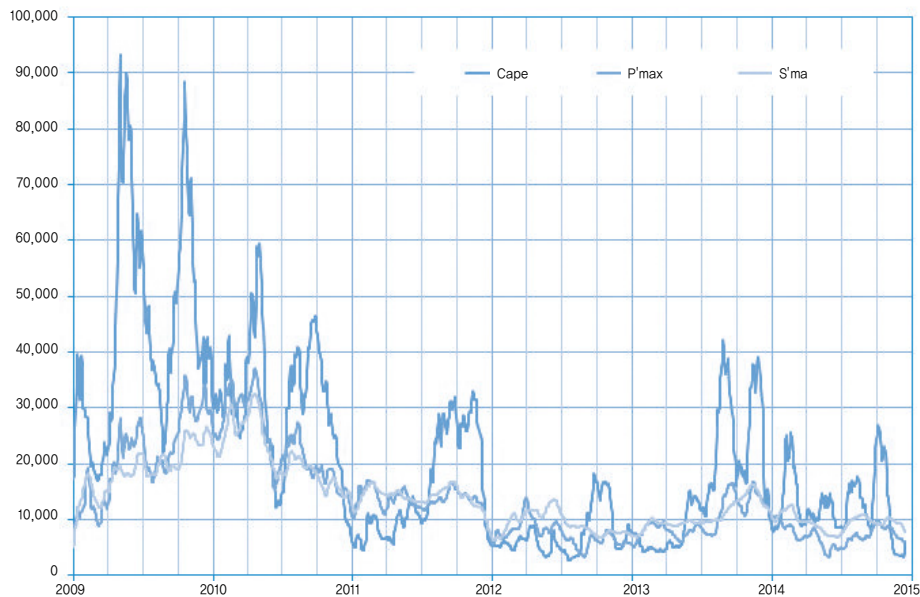
‘Clarkson’이 집계한 월별 대두를 포함한 중국의 곡물 수입량을 살펴보면 지난 7월 수입량이 ‘883만 톤’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뒤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10월에는 ‘515만 톤’으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곡물 가격 약세가 지속됨에 따라 관망세가 확산되는 한편 미국과의 유전자 변형 옥수수 통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후 11월 수입량이 전월 대비 40% 가량 크게 증가한 ‘723만 톤’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미국의 대 중국 곡물 수출이 활기를 보임에 따라 향후 수입량 또한 강세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 곡물 해상운임 추이와 전망

■ 최근 건화물선 시황

그림 2. 건화물선 선형별 용선료 변동 추이



자료: Baltic Exchange

최근 건화물선 시황은 Cape 선형을 중심으로 시황 약세가 계속되며 동 선형의 용선료가 선박 운항에 필요한 기초 운항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매년 4분기에 브라질의 철광석 수출량이 증가하는 한편 신조 인도량은 줄어들며 나타나는 반복적인 시황 강세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대형선을 중심으로 시황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철광석과 석탄을 주로 운송하는 Cape 선형은 용선료가 한 때 \$5,000 선 아래까지 하락한 뒤 최근 들어 소폭 상승하였으며 석탄과 곡물을 주로 운송하는 Panamax 선형 또한 시황이 동반 약세를 보이며 현재는 용선료가 약 \$6,000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편 곡물과 철강 제품을 주로 운송하는 Supramax 선형의 경우 중국의 철강 제품 수출이 활기를 보임에 따라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며 용선료는 약 \$8,000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향후 시황은 현재의 용선료가 선주들이 받아들이기에 너무 낮은 수준에 형성되어 있고 이에 따라 다수의 선박들이 운항을 포기하고 선박을 세워 놓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공급 조절이 이루어지며 점차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금년의 수급 여건은 작년과 거의 비슷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황이 빠르게 상승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원유를 비롯한 철광석 석탄 등 원자재 부문에서 나타나는 시장 침체는 해상 운임에도 영향을 미치며 시황 상승을 제한할 것으로 전망된다.

■ 곡물 해상운임 추이와 전망

표 7. 수역별·기간별 곡물 운임 현황

단위: US\$/MT

기 간		USG 운임	PNW 운임
2015년	2 월	33.82	19.98
	3 월	34.82	20.68
	4 월	35.40	20.96
	5 월	35.77	21.11
2016 년		36.18	21.16
2017 년		36.79	21.55
2018 년		37.37	21.77

자료: 캄코선박운용(주)

2014년 1월 현재 US Gulf 곡물 운임은 톤 당 약 '\$33~34'선에서 성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까지 톤 당 약 '\$600'선에서 유지되던 연료유가가 원유가 하락으로 인해 최근 들어서는 약 '\$250'선까지 하락하였으며 이에 따라 비용 측면에서 운임 하락을 가속화 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전반적으로 건화물선 시황이 연초에 크게 움직이지 않으며 곡물 운임 또한 변동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 상황이며 주요 곡물 메이저들도 상황을 관망할 뿐 서둘러 성약에 나서지 않고 있다. 또한 1분기에는 건화물선 시황이 상대적으로 낮았음을 시장 참여자들이 고려하여 시장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가라앉은 상태이다.

선물 시장 또한 크게 다르지 않으며 선물과 현물 시세 차이 또한 크지 않은 상황이나 앞서 언급한대로 메이저들은 용선료 변동 보다는 현재 연료유가가 상승할 시점을 저울질해 보고 있으며 남미 시즌에 대한 기대감으로 2분기 운임은

다소 현물 대비 다소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Panamax 용선료가 \$6,000 수준으로 사실상 선주들이 감내할 수 있는 한계선 상에 있고 유가 또한 추가 하락의 여지가 적다고 판단할 때 향후 곡물 운임은 하방 경직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선복 과잉 공급의 여파로 인해 급등의 가능성 또한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